

“광주 ‘경양방죽’을 기억하시나요”

동아시아미술교류협·은암미술관
2일부터 문화예술인들이 행사
학술발표회·아카이브 전시 등

경양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시 동구 계림동(계림1동)에 있었던 저수지로 호남 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다. 경양방죽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었고 수백년된 팽나무, 왕버드나무, 귀목나무 고목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또 광주의 명소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피서객들이 뱃놀이를 하거나, 썰매와 스케이트를 탔기도 했다.

경양방죽은 1·2차 매립 과정을 거쳐 사라져버렸고, 2차 매립 후에는 광주시청 건물이 들어섰다. 광주의 오랜 역사 중 하나인 경양방죽을 기억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동아시아미술교류협회(이사장 채관병)는 2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경양방죽 문화예술인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공동주관체인 은암미술관 전시실과 옛 경양방죽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로 학술발표회, 문화예술 지도 그리기, 아카이브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경양방죽 연구학자 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경양방죽의 미래까지 개발을 목표로 준비된 경양방죽 학술발표회는 2일 오후 2시 은암미술관 2층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종원(광주전남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서해숙(사)남도학연구소 대표, 윤



1940년대 경양방죽

희철(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이 발제를 ‘우리의 경양방죽·물길’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22일 오후 3시 계림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경양방죽 문화예술 지도그리기’ 행사가 열린다. 경양방죽의 옛 모습과 현재모습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미래의 경양방죽 모습 그리기’를 통해 경양방죽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자리다.

행사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장과 전경숙 전남대 명예교수의 사전강의가 열리며 옛 경양방죽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10월 11일-10월 28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너와 나의 경양방죽 나들이’는 두 행사의 결과보고전이다. 시민들이 그린 미래의 경양방죽 지도 전시와 경양방죽의 과거와 현재모습을 아카이브 형태로 보여준다. 기획은 전경숙 교수가 맡았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연옥



서한우

‘소리와 인연을 맺는다’

사단법인 소리연 창단공연, 6일 ACC 예술극장 2

사단법인 소리연(緣)(대표 김연옥) 창단공연이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막을 올린다.

‘소리와 인연을 맺는다’라는 의미의 소리연은 국악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시대별 전통음악을 융합한 새로운 국악콘텐츠 창작을 목표로 지난해 창단됐다.

‘국악의 향연, 명인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창단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이정주의 사회로 승무 한명선, 소프라노 정수희, 아쟁 김영길, 비구춤 서한우, 소리꾼 김연옥·윤진철·허승희·김정미·한혜숙, 판굿 장호준 등 내로라하는 지역출신 국악명인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이정주의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시작으로 한명선의 승무 공연을 그리고 소프라노 정수희가 ‘한오백년’, ‘흥타령’ 무대가 이어진다.

또 김영길 ‘아쟁을 위한 시나위’, 김연옥 ‘추억’, ‘속대머리’ 무대와 서한우가 비구춤을 선보인다.

이 밖에 윤진철이 판소리 ‘심청가 중 주과포혜’, 허승희·김정미·한혜숙이 판소리 ‘상주아리랑’, ‘홀로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장호준이 판굿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거문고 김태래, 대금 김승호, 태평소 김원근, 장단 김준영, 피아노 유세운, 해금 이소리, 베이스 조중현, 드럼 박상민으로 구성된 음악팀 시나위가 함께해 흥을 더한다. 아울러 빛고을영무장 농악단 난실과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단원들이 함께한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4164-781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립 67주년 밀알중앙회 2일 강사랑환경대학 창립총회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창립총회가 2일 오전 밀알신협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은 밀알중앙회(총재 채정기)가 공익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강사랑환경대학은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지역 환경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제1기 44명 수료생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196명이 수료했다.

창립총회에는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수료생은 물론 환경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 창립총회를 축하하게 된다.

강사랑환경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은 우리지역 광주전, 무등산 권역을 찾아 무등산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우리강산 우리가 지키자’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공익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문예회관연합회장에 이승정 현 회장 당선 “전국 종사자들 살피는 작은 등불 되겠다”

순천출신...전남예총회장 등 역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10대 회장으로 이승정(사진) 현 회장이 당선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술의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승정 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은 순천 출신으로 조선대와 동대학원 석박사를 수료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과 한려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예총 전라남도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적 소외의 지역인 군 단위 국민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승정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문예회관 종사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서 문예회관이 더 빛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전국 문예회관 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섬세하게 살피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10대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 3년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백경우 ‘승무’

국립남도국악원, 3일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 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3일 오후 5시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청운추월(靑雲秋月)’을 주제로 백경우(사진)를 초청해 다양한 전통춤과 판소리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는 백경우의 ‘승무’로 시작한다. ‘승무’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완전한 예술의 형식을 갖춘 춤으로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두 번째 무대는 ‘장구 시나위’로 무속음악에서 즉흥적인 합주음악인 시나위를 설장구와 결합해 장구의 새로운 모습을 선사한다.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 주과포혜’를 들려주며 살

의 액을 제거 소멸시켜 안심입명을 가져오고 희망을 선사하는 ‘살풀이춤’ 등이 펼쳐진다. 끝으로 전통과 권위 있는 사회질서를 기본적 틀로 하는 사대부계층의 젊은 선비들의 생활을 표현하는 ‘사풍정감’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공연에는 주소연, 정준호, 민영치, 신현식 등 국악 명인들이 함께 한다.

토요일 상설은 무료이며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4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